

한-호주 FTA 발효...와인·밀·소고기값 싸진다

지난 12일부터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와인 소고기 등 호주에서 들어오는 주요 수입품의 가격이 잇달아 떨어지고 있다.

일부 호주산 와인값은 이날부터 15% 안팎까지 내려갔고, 소고기, 밀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이다. 대(對)호주 수출 관세 또한 낮아지면서 승용차,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현지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이다.

한-호주 FTA 발효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입 품목은 와인이다. 호주산 와인에 붙던 기존 15%의 관세는 모두 사라졌다. 와인 수입업체인 신동와인은 이날부터 호주산 와인 '로스마운트'와 '토브레'의 판매가격을 13~15% 인하했다. 이에 따라 61만8000원에 판매 중인 '토브레 런터'는 종전보다 14% 할인된 53만3000원에 시판되고 있다.

유태영 신동와인 대표는 "그동안 관세 부담 때문에 호주 와인이 칠레와 미국에 밀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FTA 발효를 계기로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호주산 소고기 가격도 FTA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이다. 호주산 냉동 소고기에 붙는 40%의 관세가 발효 즉시 2.7% 낮

와인 15% 관세 모두 사라져

소고기 15년간 단계적 철폐

내년 3월경부터 인하 효과

체리 관세 24%도 없어져

12월부터 관세인하·철폐되는

수입되는 품목	기존 관세	인하된 관세
냉동 소고기	40	37.3
와인	15	0
껍질 껌아몬드	8	0
산선 체리	24	0
연어	20	0
승용차·화물차	8	0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지고 15년간 단계별로 인하된다.

현재 호주산 소고기 마트별 100g당 가격은 2200~2500원에 형성돼 있다. 지금도 미국산 소고기보다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소고기는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고기 관세 인하 효과는 내년 3

월경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현지에서 제품을 주문한 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호주산 냉동 소고기 관세(40%)는 이날부터 37.3%로, 내년 1월부터 다시 34.6%로 낮아진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수입된 물량이 다 팔리는 3월부터 호주산 적아이를, 안심, 채끝, 볼고기 등 소고기 전 품목 가격을 4%가량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산 제분용 밀의 관세(1.8%)도 철폐됐다. 이에 따라 호주산 밀을 사용해 제분되는 밀가루 가격은 6개월 뒤 소폭 인하될 예정이다. 호주산 밀은 국내 제분용 밀 수입량 중 40%를 차지할 만큼 큰 시장이다.

24%에 달하던 호주산 체리 관세도 이날부터 없어지면서 국내 판매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는 국내총생산(GDP) 1조 5000억달러, 1인당 GDP 6만5000달러로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양국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한국의 대호주 수출이 95억6300만달러, 수입 207억8400만달러 등 총 303억4700만달러에 달했다. 호주와의 FTA는 지난해 말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됐고 주요국과의 FTA 가운데 10 번째로 발효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2일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호주산 소고기에 부과되던 관세가 인하되는 가운데 소고기와 와인 등 주요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호주산 소고기 판매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유가 하락·그리스 혼란

연이은 글로벌 악재

리스크 관리에 주력을

연말밸리를 기대했던 국내주식시장은 대외변수로 인하여 험겨운 한 주를 마무리했다.

멈추지 않는 국제유가 급락세와 구제금융 조지급업이 무산되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확대되고 있는 그리스, 중국의 경기 지표 부진과 대륙 담보 요건 강화와 일본 신용등급 강등 경고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피는 전주(12월 5일) 대비 64.91포인트(3.27%) 하락한 1921.71로 마감했다.

국제유가(WTI기준)는 11월말 70달러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 12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57달러선까지 내려앉았다.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브레이크 없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하락 원인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 정례 회의에서 감산 합의 실패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수출 가격 인하나 미국 원유재고 증가, 그리고 OPEC의 2015년 원유 수요전망 하향 조정과 최근 중국과 유럽을 둘러싼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유가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유가하락으로 인한 소비가 늘어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 보다는 석유수출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그로인해 글로벌 경제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있다.

또한 17일 그리스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할 경우 국제 탕감 협상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유로존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고, 미국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인상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심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일본 조기 총선 이후 연화 악재 기조가 재점화 될 가능성 등으로 연말 산타밸리와 배당투자를 기대했던 투자자에게는 글로벌 투자 환경이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번주에도 주요국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국내주식시장은 관망심리가 짙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 상승 폭이 낮은 상황에서 과도한 조정을 겪고 있고 악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ECB, 중국 등 통화완화 정책으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은 투자심리를 개선 하는데 힘을 보탬 수 있겠지만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전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 했을 때, 연말밸리를 기대하기 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하겠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종목 선별에 나설 필요가 있다.



김경신

〈우리투자증권
수안지점 부장〉

내국인도 환전상서 달러 살수 있고 해외송금 신고 않고 2000달러까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새해부터 시행

내년 1월 1일부터 내국인(거주자)도 가까운 환전상(환전영업자)에서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살 수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해부터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시행되면서 거주자에 대한 외화 매각(원화 매입) 업무가 환전상에게도 추가로 허용된다.

환전상은 그동안 외국인(비거주자)을 상대로는 외화 매입과 매각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었지만 내국인 상대 업무는 외화 매입(원화 매각)만 할 수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환전상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들도 외화를 살 수 있는 창구가 확대돼 편리해진다"며 "소비자가 은행보다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지는 시장의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의 환전상 이용이 활성화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은행 영업이 끝난 밤 시간이나 주말 등 제한적인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P환전소는 "밤 9~11시까지도 문을 열어 미처 환전하지 못하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주로 영업하고 있다"며 "내국인 이용자가 밤 시간에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영업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환전상은 지난 11월말 현재 호텔숙박업소 경영 환전상이 471곳으로 가장 많고, 개인환전상 420곳, 마트를 비롯한 판매업소 경영 환전상 194곳 등 전국에 총 1389곳이 있다.

환전상은 2009년(연말 기준) 1424곳을 정점으로 3년 연속 줄어 2012년에는 1207곳에 그쳤으나 2013년(1275곳)부터 증가세로 돌아섰

으며 '유커'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등 방한 외국인의 증가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는 이미 114곳이 늘었다.

환전상은 과거 한때 인가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일정 기준의 영업장을 갖추고 등록한 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해외송금 업무도 취급하는 은행 등 외국환은행과는 달리 환전 분야에서 제한적인 외환 업무만 취급한다.

한편 이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해부터 환전상 이외화매입이나 원화매입 등 환전할 때 하루 2000달러 이하(동일인 한도)는 별도의 증명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어진다.

또 외국환 은행에 신고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가 종전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시행

모든 제품 안전관리대상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든 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년 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스제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해 모든 어린이제품에 적용된다. 또 어린이가 자칫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이나 위해자석 등에 대한 크기기준 등도 규정된다.

국표원의 이번 조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내년 6월 4일부터 정부가 정한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표원은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져 유해물질 함유 등 불량 제품은 유통·판매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표원은 조만간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입안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국표원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시행취지와 시행내용, 안전기준(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6일에 건설기술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매”

경매 서둘지 마라! 좋은 물건은 쏠아진다!

탐정처럼 분석하고 목사처럼 협상하고 검사처럼 다뤄라!!



“경매투자”

- ▶ 배우면서 투자가능
- ▶ 특수물건만 취급
- ▶ 1대1 개인지도
- ▶ 경매사 자격증 발급
- ▶ 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 오천경매
H.010-3605-5000